2500년 신비 미얀마불교 조명

불교TV 내달 3 · 10일 '미지의 나라…' 방영

국민 출가생활 · 원시불교 현장 첫 선

여러 갈래의 민족이 이루고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와 8천개가 넘는 금편으로 뒤덮여진 황금탑 쉐다곤 파고다 등 원시불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해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불국토의 나라 미얀마.

불교TV는 미얀마 불교문화 및 건축양식과 종교를 통한 미얀마인의 소박한 생활상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미지의 나라, 미얀마'를 8월3일과 10일 2회(오전9시10분~오전10시)에 걸쳐 방영한다.

3일 방영될 제1부 '황금탑의 기도'에서는 9~12세의 남자 아이들이 불문에 들어가기 위한 종교의식인 신쥬의식과 사원안에서 행해지는 어린 수련생들의 절제되고 엄격한 생활모습을 보여준다.

또 양곤, 만달레이, 핀다야, 파간 등의 수많은 탑들과 세계 최대의 와불상을 모신 슈엔다리아사원, 미얀마 최고의 목조사원인 쉐난도승원 등이 소개된다.

10일 방송될 제2부 '몬지를 입은 사람들'에서는 130여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는 미얀마인들의 신앙과 생활상이 공개된다.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장의 천을 돌돌말아 치마처럼 입은 몬지 차림의 미얀마인들이 시장경제 체제 도입후 생겨난 보석시장, 수산시장, 과일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현금거래하는 모습도 화면에 펼쳐진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8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방영될 불교TV의 '미지의 나라 미얀마'의 한 장면. 사진은 미얀마의 상징인 황금탑 '쉐다곤파고다'

■프로그램협찬 한갑진회장

"불교영상 발전 도울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한다면 다수의 시청자들이 불교TV에 채널을 고정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불교 영상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94년 제작돼 시청자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다큐멘터리 '미지의 나라 미얀마'를 무상 보시한 한진흥업 한갑진회장(75).

30여년을 영화제작에 바쳐온 한회장은 지난 78년에 만든 영화 '팔만대장경' 및 청소년, 효 등을 주제로 한 10여개 불교 작품을 케이블TV 대우씨네마네트웍과 방영 계약이 끝나는 2000년부터 불교TV에 무상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친근한 동물…'불성'에 비유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13

◇심우도중 '목우', 송광사 벽화, 조선시대.

소

소처럼 인간과 말점하며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이 이익이 되는 동물이 있을까. 소는 순한 성격에다 농사에 없어서는 안될 가축이며 재산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여 가족과 다름없는 생구(生口)라 부르기도 하였다.

사찰의 벽화로 전해지고 있는 심우도(尋牛圖)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사람과 가장 친근하고 근기가 굳센 동물인 소를 인용하여 불성을 구하는 수행의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아 먹여 기르는 10장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왼쪽 그림은 심우도의 5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목우(牧牛)'이다.

기독교에서도 소는 신성하고 친근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장면인데 누런 소와 말이 함께 갓 태어난 예수를 정답게 바라보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지오반니作 '그리스도의 탄생', 1436년, 바티칸미술관 소장.

주부 신행담 — 너무나 소중한 만남 ②

결혼전 일기장 태우다 인연의 소중함 되새겨 남편과의 갈등 해소

알고보면 남편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복자였다. 시아버지는 6·25 동란당시 군에 다녀온 후 너무나 가난한 살림에 쌀 몇가마를 더 보태기 위하여 다른사람 대신 군에 입대하여 전사하였다.

남편은 자라면서 농사일도 하고 거친 일을 안해본 것 없이 다했다. 초등학교 3년 다니다만 학력에 재산도 없는 그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결혼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고 참고 참으며 지내다 덜컥 임신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내 심정도 모른채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자기에게 제동이라도 거는 듯이 보였는지 임신사실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이듬해 사월 쌍둥이를 낳았다. 큰애는 3.2kg으로 정상 체중이었으나 작은애는 2.2kg밖에 되지 않았다. 다행히 둘다 잘 자라주었다. 그 무렵 처녀시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부엌아궁이에 넣고 태우다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78년에 쓴 그 일기에는 그 당시 뒷던 꿈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꿈에서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아래 냇가엔 모래장난을 하며 아이들 셋이 놀고 있었다. 남자애 둘, 여자애 하나였는데 그 중 한애가 '저 사람 우리 외숙모 될 사람이야' 했다.

남편과는 창으로 부부의 인연이 있어서일까. 78년 당시 냇가에 살던 큰 시누이는 남자애 둘과 여자애 하나를 두었다. 그때만 해도 난 남편의 이름 석자도 모르고 부산의 모 구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계추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꾸었을까? 우연히 새둔 꿈의 내용이 8년 뒤 결실을 맺다니. '인연법'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믿어줄지 모르지만 결혼 전이나 후에도 오랫동안 남편에겐 정이 가지 않았는데 큰 시누이와 그 애들에겐 절로 정이 느껴졌었다.

그날 일기장의 또 한 부분에 눈이 멈추어 멓어질줄 몰랐다. 그것 역시도 결혼전 썼던 일기로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음정진을 꾸준히 하던 날의 꿈이야기였다. 아니 꿈이 아니라 기도 중의 예시라고 할 수도 있다. 꿈속에서의 난 당시 다니던 절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마주 올라오는 사람들과 부딪쳐 다칠까봐 살짝 피하여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그림 · 문병성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순간 내 다리에서 하얀 기저귀 두 개가 스르르 풀쳐지더니 그 남자의 다리와 꼭 묶여지는 것이었다. 이 일기장은 지금도 장롱서랍 깊숙히 잘 보관하고 있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읽어보면서 소중한 만남과 인연의 의미를 되새긴다.

쌍둥이의 아빠, 나의 남편, 이런 관계가 전생의 어떤 연이 맺게해준 거라면 그것은 만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새롭고 창조적이며 완성된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완성된이란 말이 잘못된 거라면 후회없고 죄의식 앙금이 없는 만남이란 말로 바꾸어 부르겠다.

김정숙〈구미시 선산읍 생곡동〉

출 판

본 지면은 이달은 이면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출판및 관련업체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면입니다

일정기간 계약된 지면은 해당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사홍보, 출판광고,신간안내등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규격및단가 가로 9cm×세로 7cm
이용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 (02)737-8881(代), (02)732-1522(直) F. (02)737-0697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박한번 보고 사람을 알수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상(相)을 보는법이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생김새의 미추(美醜)의 다음에의 선악(善惡)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부귀 빈천의 공적, 그리고 운세상의 길흉을 얼굴의 생김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우리라는 원리를 논하는 것이다.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금성B/D TEL 02)921-8434 FAX 02)929-3470

慧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민족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208-1 전화 (02)732-2403~4, 722-7679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송대 임제종 원오스님 문하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광라 해설을 붙여만든 (벽암록)은 종문 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의문이가 싹 풀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살아있는 선
성하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寺刹文化研究院
전통사찰총서
① 강원도 Ⅰ·2 ⑥ 전남의 전통사찰 Ⅰ
② 경기도 Ⅰ ⑦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Ⅱ
④ 서울의 전통사찰 ⑧·⑨ 전북의 전통사찰 Ⅰ·Ⅱ
⑤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Ⅱ ⑩·⑪ 충북의 전통사찰 Ⅰ·Ⅱ(근간)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유진오피스텔 710호 전화 02)396-5318 팩스 02)394-6728

염불의 사상, 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말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경문의 종류와 이들이 생기된 근원, 발전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들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순주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6 TEL 02)720-0372~3 FAX 02)723-0646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Ⅰ·Ⅱ·Ⅲ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붙일 수 없을때 지리가 드러나리라. 스스로 깨우쳐졌다는 생각을 버리라. 내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욕계천 수준도 안된다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이야기전3권
1권 깊은 잠이 아니고 또는 도기 아니다 2권 감칠맛과 위험한 길을 찾아서 3권 해저 잠이 깨기전 이들은 잠다
도서출판 중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태수빌딩 201호 전화 636-6873 팩스 636-6874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쁨 통해 지승김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무엇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운 보호한 방울을 부유 우가 있는데 옛의 형태로 나타났나나 현생에서 떠도는 지은 업의 고고 지금에 따라 여러 이유로 나타나고 지금에 가지 주라고 떠도는 혼들을 지주세계로 보내주면 공양이 좋아지면서 오르는 방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것은 들어 낫게 됩니다"
도서출판 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층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일타큰스님의 불교책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5,000원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으로 엮었다
생활 속의 기도법 문고판 160면 3,000원
실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 등을 자상한 법문과 함께 독자들을 쉽게 알기 쉽게 엮었다
기 도 신국판 240면 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등한 제자 신도들의 기도생활 체험담 모음집
도서출판 효림 전화 02)587-6612 팩스 02)586-9071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전화를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佛名辭典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의 불명해설 (거시불명 700개, 보살불명 720개)
각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했다. 아울러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곁들여 수록하여 자칫 불명만 설명되어 식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제에 다양함을 가미했다.
● 수계식에 대한 설명 수록
팔관도를 위한 계(戒)를 받는 의식의 순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고성훈 영음 신국판 양장 /319쪽/값20,000원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02)313-5047/5050 팩스 02)393-9696

정토문고 1 **장 '수 '멸 '죄 '경**
-태아경 천도공양법-
지승의 어머니 지장보살을 통하여 부모의 회임을 알고 어린영혼들을 정토에 태어나게 하는 지비의 가르침
정토문고 3 **죽음을 준비합시다**
-중음신 천도법-
죽음과 환생의 세계를 비로소 내의 삶의 장애없게 하는 소중한 내용이 생생하게 보여지면 일깨고 있다
죽음과 환생사이의 영혼을 스스로 천도하는 방법과 정토의 가르침
불교출판 蓮池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전화 069452-1755

불교학 개론, 종교사의 강의록! 명실상부한 종교 입문서!
도서출판 여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화빌딩201호 전화 02)730-8976 팩스 02)723-6801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아에 선사는 '잣나무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공안을 음미합시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9년 면벽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화두도 음미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 방편으로 선불교가 있습니다. 달마대사에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방편으로 전해주신 공부법도 선불교입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공덕으로 성신의 진장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 나무 석가모니불 - 제작자 합장
제품명 화엄큰스님 달마도 재질 순금 99.9% 크기 5.2cm × 7cm 가격 W20,000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펴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TEL.02)732-1522/737-8881 FAX.02)737-0697

부처를 보려거든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라
달마도의 신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대광명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 GOLD!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松江企劃
명상말씀
찬불가
불교음악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02)745-6015 FAX. (02)745-6017
내면의 울림/진리의 法音
순당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usic!
법문
경전
독경
협 · 찬 · 사